

영암군 지역경제 기반 강화 사업 추진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읍 상권 활성화 등 조사용역 보고회

10월께 최종 보고서...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모색

영암군이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기반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최근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영암읍 상권 활성화, 삼호시장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은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현황조사·분석, 입지 수요조사, 유치업종 선정, 개발 규모·내용 설정, 사업 대상지 타당성 검토 등이다.

새로 들어설 제2특화농공단지 예정 입지는 영암읍 식품특화농공단지 옆의 약 11만㎡ 부지다. 영암군은 기존 농공단지와의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방

식으로 새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암읍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용역은 영암읍 골목상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염두에 둔 용역이다. 영암읍만의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정 등을 추진한다.

삼호시장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은 주변환경 분석,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접근성·효율성·편의성·연계성을 검토해 시장 입지를 살핀다.

각각의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께 나올 것으로 보

인다.

영암군은 이번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에 농공단지 지정과 공모사업 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영암읍 상권 활성화, 삼호시장 개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이뤘다"며 "이번 용역이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수해 애도”

무안연꽃축제 대폭 축소

20~23일...노래자랑 등 취소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6회 무안연꽃축제'가 전면 취소 수준으로 축소 진행된다.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제)는 19일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민 등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자 축제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축제 기간 폐막식과 공연, 군민 노래자랑 등은 전면 취소된다.

행사장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체험만 운영된다.

박문제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축제추진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축제 개최 여부를 논의하여 이같이 결정했다"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부득이한 결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본격 활동

'1섬 1테마 정원' 조성사업 참여...정원수 키우고 일자리 창출

신안 '1섬 1테마 정원' 조성을 이끌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이 19일 정기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최미숙 전남도의회 의원, 신안군의회 의원, 협동조합 임원·조합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안군 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출범했다.

지난 4월 조합 창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 심사를 거쳐 지난달 1일 산림청 최종 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전남도 농촌종합지원센터 전문가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 조합은 앞으로 신안군 역점 사업인 '천사섬 프로젝트' 1섬 1테마 정원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조성사업에 쓰이는 정원수를 직접 키우고 가꾸어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 소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정원 조성사업에 쓰이는 자재를 공동 구입하고, 양묘 전문 교육 등을 벌이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원수 양묘사업 수익금은 조합원 배당에 사용하

지 않고, 지역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양묘 기술교육, 전문가 교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입 등을 위해 쓰인다.

강행선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합원이 정성으로 키운 우량 정원수를 체계적으로 생산·유통해 신안의 '블루오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조합의 양묘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청년·노인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안군은 스마트 온실 설비 등 양묘기술을 제공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가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정기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 내년 국비 확보 '발로 뛰다'

기재부 방문 주요 사업 반영 요청

강종만 영광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18일 기재부에서 김동일 경제에 산실의관을 만나 내년도 영광군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수출주력형 e-모빌리티 공동 생산 기업지원, 영광 우평지구 배수개선 사업, 법성정수장 개량 사업, 염산신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이다.

또 영광송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흥농성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이며 총사업비 678억원, 국비는 409억원 규모다.

군은 국회·중앙부처·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정부 긴급 재정운용 기조로



강종만(왼쪽 두번째) 영광군수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영광군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

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이 목포시청에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이불세트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1%나눔재단 제공>

현대삼호중, 목포·영암 저소득층 여름나기 물품 후원

200가구에 2천만원 상당 이불

현대삼호중공업이 목포시와 영암군 거주 저소득층 200가구에 2000만원 상당의 여름 이불세트(냉감패드·이불) 200개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목포시와 영암군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에서 선정했다.

물품 전달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해피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지정기탁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불세트는 HD현대1%나눔재단의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HD현대1%나눔재단은 그룹사 임직원의 급여 1%를 모아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후원 물품 전달식은 지난 14일과 17일 영암군청과 목포시청에서 각각 열렸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층 가구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 신소득 작목 애플망고 본격 출하

익은 뒤 수확해 맛 좋고 향 풍부 주문하고 2~3일 내 수령 가능

완도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소득 작목으로 재배한 애플망고(사진)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완도군 군외면 신하리 일원에서 '야열대 과수 재배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애플망고 재배가 본격적인 수확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플망고는 열대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며 달콤한 맛과 향,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특히 완도산

애플망고는 장기 저장되는 수입산과는 달리 완전히 익은 뒤 수확해 맛이 좋고 향도 풍부하다. 당도가 평균 18브릭스(Brix) 이상으로 높다.

소비자들은 주문 후 2~3일 이내에 신선한 과일을 받아볼 수 있다.

'야열대 과수 재배 기반 조성 사업'에 참여한 서명완씨의 농가에서는 300그루의 애플망고 재배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1t 가량을 수확할 예정이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 3kg(애플망고 7~10개) 1박스가 1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도산 애플



플망고 재배 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고품질의 열대 과수 재배를 위해 재배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평일에도 체험하세요"

22일~내달 20일 도자기·세라믹 색종이 등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평일에도 도자기 체험을 운영하고 19일 밝혔다.

주말에만 운영했던 도자기 체험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상시 진행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 누구나 선착순으로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료는 수업에 따라 8000원부터 1만원까지 다르다.

물레 체험과 빚어 만들기, 손바닥 그림, 손도장 찍기, 시계·화분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도자기 체험뿐만 아니



목포시 용해동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도자기 체험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라 세라믹 색종이 체험 등도 진행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 면책보호관 도입...적극행정 활성화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 배부

목포시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목포시는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보호관은 공무원의 면책 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면책 관련 법률 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목포시는 또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소극행정 예방안내서를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소극행정 판단기준과 징계사례,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면책보호관제 도입을 통해 우리시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스마트경로당' 운영

화상 노래교실·건강체조 등

신안군이 8월부터 경로당 28개소에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스마트경로당은 화상플랫폼을 이용한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비대면 노인이 프로그램 제공한다.

28개소 경로당 동시 접속을 통해 경로당 회원들 간 상호 소통, 온라인 화상회의 등도 진행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면책보호관제 도입을 통해 우리시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